

“직접담근 김치 기대감 커... 재료 조절해 비건김치 도전”

Q 르포 | 풀무원 운영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 가보니

“김치를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재미 있고 뿌듯해요. 친구들이랑 다같이 만들어서 즐거웠던 것 같고 귀국해서도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풀무원이 운영하는 ‘뮤지엄김치간’의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김치학교’에 참여한 바르샤(23, 인도)씨의 소감이다.

뮤지엄김치간은 1986년 중구 필동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김치박물관으로, 2015년 4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뮤지엄김치간(間)’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김치의 유래와 종류, 담그는 도구, 공간과 관련된 유물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전시를 통해 김치와 김장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보존해오고 있다.

뮤지엄김치간에는 연간 약 4만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코로나 휴관기간을 거쳐 재개관 이후 2023년에는 외국인들의 방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방문객 중 외국인 비중은 약 45%이며 미국, 유럽, 동남아 순으로 방문율이 높다.

지난 1일 뮤지엄김치간에는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

는 외국인 학생 25명이 방문해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실 책상 위에는 각종 양념 재료와 절인 배추가 놓여있었다.

먼저 VCR 화면에 김치에 대한 소개와 역사가 펼쳐졌다. 이후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소를 만드는 방법이 화면에 등장했다. 강사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과 함께 실제로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선보였다. 절인 배추에 들어가는 양념소는 하루이틀 숙성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양념소가 제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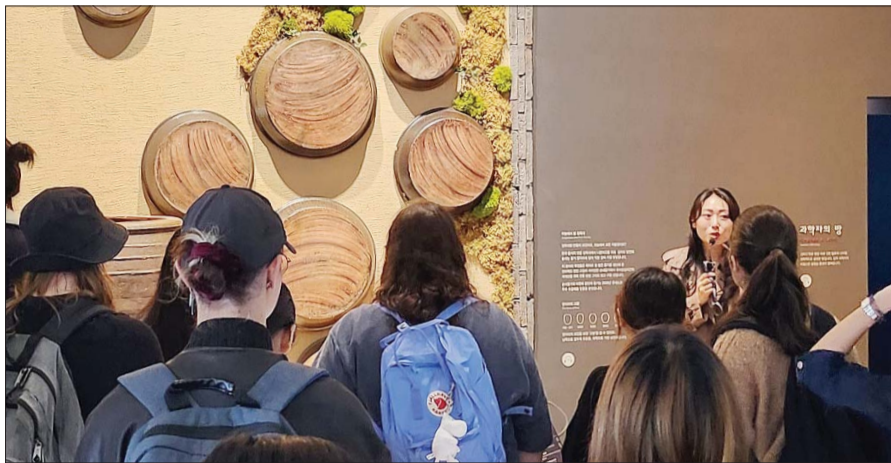
간략한 이론 수업과 영상을 시청한 뒤 학생들은 각자 앞에 준비된 양념소를 절인 배추에 버무리기 시작했다. 골고루 양념이 배어들도록 문히고 난 뒤 배추 잎 두 장을 포개어 감싼 뒤 김치통에 넣으면 수업은 끝이 난다.

평소 김치를 즐겨 먹는다는 라리사(21, 호주) 씨는 “호주에서도 김치를 먹어 봤는데 한국에서 먹은 것보다 덜 맵다”며 “직접 만든 김치를 집에 가서 먹을 생각을 하니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수업을 들은 바르샤 씨는 “채식



뮤지엄김치간 ‘외국인 김치학교’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뮤지엄김치간 도슨트와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김치의 유래와 종류·콘텐츠 전시 연간 국내외 방문자 4만여명 달해 외국인 학생 25명 김치담그기 체험 “호주에서 맛본 김치보다 더 매워”

주의자이기 때문에 오늘 만든 김치는 친구에게 선물할 생각이야”라며 “오늘 수업을 통해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으니 재료를 추가하거나 덜어내서 제가 먹을 수 있는 비건 김치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김치 만들기가 끝난 뒤 건

물 4층부터 6층까지 3개 층에 마련된 ‘뮤지엄김치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뮤지엄김치간 도슨트와 함께 30분 가량 전시관을 관람했다.

한편, 뮤지엄김치간은 2015년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11대 음식 박물관’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2017년 미국 글로벌 매거진 엘르데코(ELLE DECOR)에서 ‘세계 최고의 음식박물관 12곳’으로 소개하기도 했으며, 작년 7월에는 인도의 온라인 정보소 개 매체 ‘블리인사이드’가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박물관 12곳’ 중 한곳으로 꼽

기도 했다.

뮤지엄김치간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김치 클래스 101’ 프로그램과 ‘잇츠 김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어린이 대상의 김치학교 프로그램,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외국인 김치학교’ 프로그램, 다문화 이주 여성 및 그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김치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2030 대상 무료 김치학교 ‘비건김치’를 운영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랜드리테일, 43주년 감사제 ‘역대급 혜택’

NC백화점 등 전국 44개 지점 동참 460여개 패션 참여 연중 최대 축제

11월 쇼핑 대목을 맞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김스클럽, 이랜드글로벌 등 유통 계열사와 연합하여 ‘역대급 혜택’을 내건 43주년 창립 감사제를 두 차례 개최한다. 1차 감사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2차 감사제는 22일부터 28까지 진행된다.

이랜드 43주년 창립 감사제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 아울렛, 동아백화점 등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전국 44개 지점에서 매년 11월에 진행하는 연중 가장 큰 고객 감사 축제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460여개의 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1000개의 단독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이랜드김스클럽은 농산·수산·축산·가공 등의 식품 및 생활품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백화점 감사점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등 장바구니 필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번 감사제는 이랜드글로벌의 브랜드를 포함한 460개의 브랜드와 협업해 1000여 개의 단독 기획 상품을 준비했다.

기획 상품은 이랜드리테일의 MD와

지점의 직원들이 지난 1년간 수집한 고객의 소리를 기반으로 ‘고객 심리가’를 적용한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선보인다.

‘고객 심리가’란 ‘이랜드리테일의 고객이 상품별로 적정하다고 느끼는 가격(고객이 가치를 느끼고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을 말한다.

이번 기획 상품은 이랜드리테일에 입점한 전체 패션 브랜드의 80%가 참여해 카테고리별 최대 200개의 기획 상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실제로 영캐주얼 카테고리에서는 숲과 비즈트인 뉴욕의 가슴비 ‘구스다운 및 울/캐시미어 혼방코트’를 10만원대에 준비했다. 이외에도 모든 패션 카테고리에서 이랜드만의 수많은 기획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동원홈푸드, 양산에 신규 식자재 물류센터

영남권 유통사업 강화 나서

동원홈푸드가 경남 양산시에 자동화 설비 기반의 신규 식자재 물류센터를 가동하고 영남권 식자재 유통 사업 강화에 나섰다.

동원홈푸드는 지난 3일 경남 양산시 어곡동에서 정문목 동원홈푸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물류센터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산 신규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2만6000㎡(7850평) 부지에 지상 3층과 지하 1층 등 총 4개층으로 지어졌다. 상온, 냉장, 냉동 등 모든 종류의 식자재를 취급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물동량은 약 450톤으로 동원홈푸드가 운영하고 있

는 식자재 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자동화 물류 설비를 갖춘 시설로 식자재 분류, 이송 등의 단계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 물류센터에서는 양파나 배추와 같이 외형이 일정하지 않은 식자재를 사람이 직접 검수하여 분류 및 이동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배송 등의 인적 과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양산 물류센터의 식자재 자동 분류 시스템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고된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인식하고, 배송지에 맞춰 상품을 자동으로 분류해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시켜 시간 지연이나 오배송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풍선껌 불기에 도전하세요”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 개최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되살아나는 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색 대회를 개최한다. 롯데웰푸드는 2012년 첫선을 보인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을 8년 만에 다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풍선껌 불기를 비롯해 껌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펼치는 서바이벌 형태의 대회로, 매 회차마다 다수의 풍선껌 불기 능력자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참가 신청 기간은 이번달 17일까지다. 검색 포털에서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을 검색하거나 JTBC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 시 참가자의 정보와 풍선껌을 크게 부는 영상을 함께 등록하면 된다. 또 개인 SNS에 지원 영상과 ‘롯데왔다껌’, ‘풍선껌크게불기챔피언십’ 해시태그를 함께 업로드하면 예선 통과 확률이 높아진다.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은 온라인 심사를 통한 예선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쟁을 치루는 본선 및 결승전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본선 대회와 결승전은 11월 25일에 진행된다. 해당 대회의 결과는 JTBC2 채널 방송을 통해 12월 20일과 27일에 순차적으로 방영된다. /신원선 기자

쿠팡, 휘닉스파크 리프트권 단독 최저가

‘골드박스’서 최대 46% 할인

쿠팡이 와우 회원 전용 할인코너인 ‘골드박스’에서 ‘휘닉스파크 리프트권 2종’을 최저가로 단독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쿠팡은 겨울 스포츠 성수기를 앞두고 올인클루시브 리조트인 ‘휘닉스파크 리프트권’을 찾는 와우회원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와우회원이라면 6일 단 하루, 골드박스에서 ‘휘닉스파크 리프트권’을 최대 46%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휘닉스파크 리프트권’은 ▲올데이 패스 프리미엄(1인) ▲스마트패스(1인) 두가지다. ‘올데이패스 프리미엄(1인)’은 리프트권과 식사, 블루캐니언, 스노우빌리지가 포함된 것으로 44% 할인된 7만8900원에 판매한다.

휘닉스파크는 국가대표 스키장으로 프리스타일 스키&스노우보드 공식 경기장, 초보자 정상 슬로프 파노라마, 스노우보더를 위한 라운드 쿼터와 레일 등이 설치된 익스트림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겨울 스포츠 명소로 꼽힌다.

/최빛나 기자

티몬-롯데웰푸드 빼빼로데이 간식 특가

티몬이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와 함께 빼빼로 데이를 맞아 인기 간식류를 역대급 특가로 선보인다.

티몬은 롯데웰푸드와 ‘티몬×롯데웰푸드 올인데이’를 개최하며 인기 간식류를 역대급 특가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티몬은 오는 11일까지 ‘세이 헬로! 워드 빼빼로’ 기획전을 펼친다. 먼저 6일 오전 10시, 7일 오후 12시 티몬 라이브 커머스 ‘티몬플레이’ 방송에서 ▲롯데 빼빼로 패키지를 할인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